

遺棄에서 自殺까지

— 明末清初 柳如是의 수치심을 중심으로

김선*

<目 次>

1. 머리말
2. 遺棄로 인한 羞恥心
3. 失戀에 대한 執著
4. 逼迫으로 인한 自殺
5. 맺음말

1. 머리말

미국 심리학자 샌드라 윌슨(Sandra D. Wilson)에 의하면 수치심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아주 다르며 그들보다 못한 존재로서 자신을 희망이 없는 인간이라고 굳게 믿는 감정이다. 수치심을 가진 이들은 독특한 사고방식과 감정, 행동방식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스스로 다른 이들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고통이 깔려 있다.¹⁾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여성학자 孫康宜는 명말청초의 핵심사상인 사랑과 애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유여시와 진자룡의 개인적인 사랑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결합되는 독특한 사회현상을 분석하였다.²⁾ 대만의 李栩鈺는 수용적인 관점에서 역사학자 陳寅恪이 유여시의 생평과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와 후세에 대한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인문사회 연구원 연구교수

1) 샌드라윌슨 지음, 정동섭 옮김,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란노, 2005.

2) 孫康宜 著 李爽學 譯, 『陳子龍柳如是詩詞情緣』, 臺北,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1992.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³⁾ 대륙의 袁文雅는 「從錢柳交往看柳如是的精神追求」에서 유여시와 전겸익의 부부관계를 토론하였고, 譚德紅은 「明清之際女性文學的奇葩 - 柳如是作品之解讀」에서 유여시의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⁴⁾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원동 교수는 「明末 기녀들의 삶과 문학과 예술 -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에서 기녀의 삶에 초점을 맞춰 유여시를 토론하였고⁵⁾, 강정만 교수는 「柳如是的愛精詩를 통해서 본 그녀의生涯 研究」에서 유여시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고⁶⁾, 한국에서 유학을 했던 중국학자 李麗秋는 『한중 妓女시인 金雲楚와 柳如是 비교연구』에서 유여시와 한국 기녀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⁷⁾

필자는 수치심의 각도에서 명말청초 유여시의 상처와 고통을 조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유여시 연구는 陳寅恪에 의해 獨立적인 정신과 自由로운 사상의 소유자이며 愛國과 英雄을 추구한 인물로만 알려져 왔다. 필자는 유여시의 걸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성취가 아닌 내면의 세계를 집요하게 흔들여왔던 수치심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유여시에게 씌워졌던 다양한 가면을 벗겨 평생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수치심의 실체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遺棄로 인한 羞恥心·失戀에 대한 執著·逼迫으로 인한 自殺을 중점으로 하여 그녀의 수치심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양상을 보였으며 결국 그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
- 3) 李翎鈺, 『河東君與「柳如是別傳」-「接受觀點」的考察』, 臺灣, 國立中央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3.
 4) 譚德紅, 『明清之際女性文學的奇葩 - 柳如是作品之解讀』,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5) 김원동, 「明末 기녀들의 삶과 문학과 예술(1) -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中國文學』第35輯, 2001. 김원동, 「명말 기녀들의 삶과 문학과 예술(2) -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中國文學』第36輯, 2002.
 6) 姜正萬, 「柳如是的愛精詩를 통해서 본 그녀의生涯 研究」, 『中國學論叢』제12집, 2001.
 7) 李麗秋, 『한중 妓女시인 金雲楚와 柳如是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대학원 박사논문, 2009.

2. 遺棄로 인한 羞恥心

유년기에 가족을 상실한 유여시는 천하에 고아가 되어 遺棄된 상황에서 생존해야만 했다. 유여시는 14세 때에 周道登 집으로 팔려와 처음에는 노비가 되었다가 후에 시중드는 첩이 되었다. 유여시가 총명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서 주인의 총애를 받자, 다른 첩들의 질투를 받아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노부인의 저지로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 기방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⁸⁾ 유여시는 어린 시절에 고아 → 노비 → 첩 → 기녀라는 천한 신분으로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두루 체험하였다. 그녀는 20대에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名妓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에 혼자 있다는 소외감을 느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유여시는 「擬古詩」 제9수인 「庭中有佳樹」에서 유년시절을 회상하였다.

弱喪爲雜役.	어려서 부모님 여의고 잡일하는 노비 되었고,
滌滌求五芝.	물결 출렁이는 곳에서 영지 찾아다녔네.
碩眞因誕德.	커다란 眞性은 두터운 덕에서 비롯되어
結藻太玄側.	우주의 본체 곁에서 문채 걸집하였네.
我欲贈夫子.	나는 군자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馨香無可植.	꽃다운 향기 심을 수 없는 것이네.
苟能一有心.	진정으로 한결같은 마음만 있다면,
何必芝可食. ⁹⁾	어찌 꼭 영지를 먹어야만 하나?

유여시는 갖 고아가 되어 막막했던 순간과 노비로서 잡무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가에서 영지를 캐는 노동을 하면서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굳이 향기로운 영지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유여시는 詩詞에서 자아인식을 투영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버들·작고 연약한 미물·가련한 꽃·잠자는 나비의 형상을 통해 자기 연민의 정서를 드러냈다. 그녀는 어린 시절 10년

8) 陳寅恪, 『柳如是別傳(上)』,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16쪽-37쪽 참조. 胡文楷, 『柳如是年譜』, 『柳如是事輯』, 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2, 465쪽 참조.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0, 279쪽-280쪽 참조.
9) (清)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24쪽.

간 여기저기 떠돌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자신의 신세를 「楊白花」에서 공중에서 떠다니는 버들개지¹⁰⁾로 비유하였고, 「咏睡蝶」에서 잠자는 나비¹¹⁾의 이미지에 투영하였다. 유여시는 「西湖八絶句」 제5수에서 가련한 꽃이라는 어휘로 장기간 인신매매로 억압을 받으며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였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푸른 난새처럼 고상하게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¹²⁾ 그녀는 자신이 봉황새가 되어 주변에서 고통받는 기녀들을 구해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¹³⁾ 유여시는 「西湖八絶句」 제5수에서 '가련한 꽃'이라는 어휘로 장기간 인신매매로 억압을 받으며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였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푸른 난새처럼 고상하게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¹⁴⁾ 유여시는 「咏晚菊」¹⁵⁾에 나타난 가을 국화와 「咏梅」¹⁶⁾에서 옅은 매화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절개를 고수하며 세상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였다. 유여시는 「咏竹」¹⁷⁾에서 부귀영화와 탐욕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푸른 소나무나 비취 잣나무처럼 고결한 인품과 영원불변한 사랑을 갈망하였다. 그녀는 기녀로서 험난한 삶을 체험했지만, 대나무처럼 세속의 영화와 이익에 영합하지 않았던 죽림칠현의 숭고한 이상을 간직하였다. 「擬古詩」 제8수인 「冉冉孤生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逍遙感石腴, 커다란 돌 틈에 닿아 유유자적하고,
至神無常移. 지극히 玄妙하여 자주 옮겨 다니지 않네.

-
- 10) 「楊白花」,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40쪽.
11) 「咏睡蝶」,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210쪽.
12) 「西湖八絶句」 제5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133쪽.
13) 「遙夜感懷」,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p.52.
14) 「西湖八絶句」 제5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p.133.
15) 「西陵十首」 제3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125쪽-126쪽.
16) 「西陵十首」 제3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125쪽-126쪽.
17) 「西陵十首」 제3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125쪽-126쪽.

昔時綺帶間,	예전에 명주 띠 사이에서,
明月何陸離.	밝은 달 얼마나 찬란히 빛났던가!
迄今萬餘里,	지금 만 여리 떨어져 있어도,
不敢忘初時.	처음 그 순간 잊지 못하네.
雙鸞自翔側,	두견새 쌍으로 빙빙 날고,
單鵠長淒靡.	외로운 고니 처량하네.
火浣織成素,	석면 베는 흰 명주가 되었고,
靑綾暮還絲.	푸른 비단은 저녁에 실 같구나.
念君惟一身,	그대가 혼자인 것 생각하니,
形影誰執持?	누가 외로운 몸을 지켜줄까?
曖曖九靈漱,	희미한 구천의 악기,
泔泔滄景辭.	축축한 물가 경치의 문사.
上下會有涯,	천지간 만남엔 끝이 있으니,
豈能無相思. ¹⁸⁾	어찌 그리움 없을 수 있겠나?

유여시는 어린 시절에 돌 틈에 생겨난 어린 대나무처럼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쌍으로 나는 두견새와 외롭게 나는 고니를 대비시켜 자신의 고독을 투영하였다. 유여시는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던 기녀 신분이었지만 애국정신을 표출하였고¹⁹⁾ 「朱子莊雨中相遇」·「劍術行」·「送曹鑾躬奉使之楚藩」·「岳武穆祠」·「于忠肅祠」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朱茅暉·孫臨·曹溶·岳飛·田橫·于忠肅같은 영웅을 칭송하였다.²⁰⁾ 그녀는 1641년에 36살이나 연상인 전겸익과 결혼식을 거행한 후 蘇州를 유람할 때 남송 때 금나라에 저항했던 여성영웅 梁紅玉²¹⁾의 묘를 찾아가 병든

18) (清)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24쪽.

19) 이 시대의 기녀들이 칭송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도덕적 정신적인 면모 때문이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녀 본연의 모습보다 明末의 기녀들은 규수에게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품행과 행실, 그리고 재능을 자랑한다. 곧은 지조와 절개, 헌신적 사랑, 남자들보다도 더 강인한 성격과 의협심 등이 이 시대 기녀들의 모습이다. 김원동, 「明末 기녀들의 삶과 문학과 예술(1) -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中國文學』第35輯, 2001, 236쪽.

20) (清)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朱子莊雨中相遇」, 60쪽. 「劍術行」, 57쪽. 「送曹鑾躬奉使之楚藩2수」, 73쪽. 「岳武穆祠」, 136쪽. 「于忠肅祠」, 139쪽.

21) 梁紅玉은 남송 금나라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여성 영웅으로 남편을 따라 출정하여 함께 작전을 지휘하였고, 침입한 금나라 군사를 장강 남안에서 48일간 저지시켰다. 이로 인해 그녀의 명성이 자자하였고 단독으로 한 部隊를 이끌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금나라 군사를 수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금나라 병사를 용감하게 물리쳤던 梁紅玉의 숭고한 인격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유여시는 내면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고상한 인품에 대해 집착하고 애국과 영웅주의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했다.

3. 失戀에 대한 執著

연애관계는 파트너 간에 두 사람만의 교제를 지속하기로 동의한 관계로 정의하고, 실연은 사랑의 해체와 종결로 의미화 한다. 실연의 유형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 한 사람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와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 이성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경우로 정의한다.²²⁾ 18세 때 유여시는 진자룡과 松江 南園에서 동거했지만 그해 여름에 진자룡의 본처인 張孺人 이 조모와 계모의 명을 받아 남원에 찾아와서 유여시로 하여금 진자룡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자 유여시는 橫雲山麓으로 떠났다.²³⁾ 유여시는 私的인 영역에서 진자룡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公的으로는 明末의 혼란한 세태에 대한 관심과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려는 애국주의적인 이상을 진자룡과 공유했는데 이는 明末 기녀들이 남성에 대한 절개와 나라에 대한 충성을

차례 물리쳤다. 후에 금나라 군사의 포위를 당해 부상을 당하였고 33살의 젊은 나이로 落馬해서 생을 마감하였다. 금나라 사람들은 양홍옥의 충성과 용맹에 감동을 받아 그녀의 시체를 둘러보냈고, 1151년 한세충은 병사하여 부부를 소주 영암산 아래에다 합장하였다. 清 乾隆十四年(1749年) 刻本, 『山陽縣志』 卷二十二, 同治十二年(1873年) 刻本, 『重修山陽縣志』. 光緒十年(1884年) 刻本, 『淮安府志』 卷三十五. 『山陽烈女』 참조.

22) 김묘정,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실연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자아가치관과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7.

23) 陳寅恪, 『柳如是別傳』(上、中、下),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38쪽-142쪽 참조. 胡文楷, 『柳如是年譜』, 『柳如是事輯』, 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2, 466쪽-486쪽.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0, 280쪽-282쪽 참조. 孫康宜著·李爽學譯, 「年譜簡表」, 『陳子龍柳如是詩詞情緣』, 臺北,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1992, 29쪽-31쪽 참조. 李樹鈺, 「柳如是年譜簡表」, 『河東君與柳如是別傳』, 「接受觀點」, 2003, 163쪽-167쪽 참조.

고수했던 사회현상과 일맥상통한다.²⁴⁾ 「遣懷」 제2수에서 유여시와 진자룡은 當時 여진족이 침입하고 농민 起義로 혼란했던 사회에 대해 걱정하며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려는 애국정신을 표출하였고²⁵⁾ 「曉發舟至武塘」에서 유여시는 진자룡과 국가의 대사를 토론하고 사회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屈原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충신이 되기를 희망하여²⁶⁾ 개인적인 연애감정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녀는 과거 진자룡과 함께 연애했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며 우울증²⁷⁾에 시달리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이별을 견뎌야만 했다. 유여시는 자신을 피 토하며 울어대는 두견새에 비유할 만큼 처절한 슬픔을 겪었고²⁸⁾, 스스로를 땅에 깃뻛힌 꽃처럼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타자라고 의식하였다. 그녀가 21살에 출간한 『戊寅草』 속에 실린 「夢江南·懷人」 10수를 통해 실연의 고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人去也,	님은 떠났네.
人去鳳城西。	님은 송강성 서쪽을 떠났네.
細雨濕將紅袖意,	촉촉한 가랑비 붉은 소매 적시고,
新燕深與翠眉低,	무성한 잡초 청록색 눈썹과 함께 수그리니,

24) 明末의 기녀들은 淸初의 문인들에 의해 낭만적 사랑에의 충절, 전통적 婦德의 재현, 脫俗적인 생활양식과 종교적 자기 헌신과 같은 불변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적 이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들은 어느 지점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서와 종종 마주친다. 유독 명이 망한 후에 명말의 기녀들을 이상적으로 회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이들 남성들이 기녀와 자기 자신을, 나아가서는 몰락한 명 왕조 전체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수경, 「명말의 기녀를 둘러싼 문화적 이미지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2006, 259쪽.

25) 「遣懷」 제2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32쪽.

26) 「曉發舟至武塘」 제1수,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85쪽.

27) 우울증이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고 외부 세계에 대한 흥미의 단절,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의 상실, 모든 활동의 금지,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형벌에 대한 망상적인 기대감으로 치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윤희기 옮김, 『무의식에 관하여(프로이트전집 13)』, 열린 책들, 1997, p244.

28) 「楊花」, [淸]柳如是撰·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61쪽.

蝴蝶最迷離。

꿈속 나비처럼 아련하여라.

2.

人去也,
人去鷺鷥洲。
菡萏結爲翡翠恨,
柳絲飛上鈿箏愁,
羅幕早驚秋。

님은 떠났네.
님은 백로와 가마우지 서식지 떠났네.
연봉우리에 비취 恨이 맺히니,
버들개지 시름겨워 금장식 쟁 위에 휘날리고,
가을 성큼 다가와 비단 휘장 안에서 놀라네.

3.

人去也,
人去畫樓中。
不是尾涎人散漫,
何須紅粉玉玲瓏,
端有夜來風。

님은 떠났네.
님은 화려한 누각 떠났네.
질투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면
화장과 옥 장식 무슨 필요가 있을까?
밤에 바람이 불어오려나?

4.

人去也,
人去小池臺。
道是情多還不是,
苦爲恨少卻教猜,
一望損莓苔。

님은 떠났네.
님은 작은 연못 돈대 떠났네.
다정해서 떠난 건지 아닌지?
원망하지 않는데도 맞춰보라 하니,
상한 이끼 한번 쳐다보네.

5.

人去也,
人去綠窗紗。
贏得病愁輸燕子,
禁憐模樣隔天涯,
好處暗相遮。²⁹⁾

님은 떠났네.
님은 비단 녹색 창문 떠났네.
근심하다 병들었다고 제비한테 전해주게.
가련한 모습으로 하늘가에 떨어져 있으니,
남몰래 숨어 지내길 원하네.

6.

人去也,
人去玉笙寒。

님은 떠났네.
님은 싸늘한 옥 생황소리 떠났네.

29)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91쪽-92쪽.

鳳子啄殘紅豈小,
雉媒驕擁麝香看,
杏子是春衫。

호랑나비는 흥두얼매 부스러기를 쪼아대고,
꿩이 새겨진 향로에서 향 피어오르고,
봄 적삼은 살구 색이었지.

7.

人去也,
人去碧梧陰。
未信賺人腸斷曲,
卻疑誤我字同心,
幽怨不須尋。

님은 떠났네.
님은 푸른 오동나무 그늘 떠났네.
슬픈 곡은 속인다고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한 마음으로 정혼하여 그르쳤으니,
마음속에서 원망 찾을 필요 없네.

8.

人去也,
人去小棠梨。
強起落花還瑟瑟,
別時紅淚有些些,
門外柳相依。

님은 떠났네.
님은 작은 팔배나무 떠났네.
일어나니 꽃은 지고 바람만 솔솔 부네.
헤어질 때 피눈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문밖의 버들 서로 의지하고 있네.

9.

人去也,
人去夢偏多。
憶昔見時多不語,
而今偷悔更生疏,
夢裏自歡娛。

님은 떠났네.
님 떠나가니 꿈만 찾아지네.
전에 만날 때 과묵했던 모습 생각한다.
지금 남몰래 후회하니 어쩐지 낯설게 느껴져,
꿈속에서 혼자 즐거워하네.

10.

人去也,
人去夜偏長。
寶帶乍溫青聽意,
羅衣輕試玉光涼,
薇帳一條香。³⁰⁾

님은 떠났네.
님 떠나가니 밤만 길어지네.
청총마 내릴 때 보석 띠는 따뜻하였고,
서늘한 달빛 비단 옷을 살짝 비추며,
장미 휘장엔 향기 가득했었지.

유여시는 실연 속에서 창작한 「夢江南」 10수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30)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92쪽-93쪽.

첫째, 대인중독(other addiction) 증세를 보였다. 과잉의존(over-dependency) 혹은 동반의존(co-dependency)이라고도 부르는데, 개인적인 안전과 정체감을 얻고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 바탕에는 수치심이 깔려 있으며, 적지 않은 고통을 동반한다.³¹⁾ 유여시는 「夢江南」에서 진자룡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제1수부터 제10수까지 “人去也”로 시작하였다. 유여시는 실연 후 2년간 진자룡과의 사랑과 동거했던 순간을 잊지 못해 처녀작인 『戊寅草』에서 실연의 아픔을 창작하였고 진자룡도 마음속으로 유여시를 잊지 못해 『戊寅草』에 序文을 달아주었다. 유여시는 24살 때 전겸익과 결혼 한 후에도 진자룡을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었고 진자룡이 반청운동에 참가하여 39살에 순국한 후 유여시는 복명운동에 가담하였다.

둘째, 유여시는 작품 속에 심리적으로 낮은 자존감·수치심·피해의식을 드러냈다. 유여시는 진자룡과 헤어진 후 자신을 잡초, 나비, 버들개지, 떨어진 꽃, 상한 이끼에 비유하며 자기 연민과 비하에 빠져 신세를 한탄하였다. 수치심은 자신이 남보다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며 소외감을 느낀다. 유여시는 ‘去’·‘隔’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과 분리되었음을 표현하고 공간적인 거리감을 통해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을 밝혔다. “禁憐模樣隔天涯, 好處暗相遮” 구절에서 유여시는 고독과 소외감을 느껴 세상과 단절하고 비참한 기녀생활을 청산하길 원했다. 그녀는 시들어가는 봄꽃을 바라보며 동거 동락했던 진자룡과 이별할 때 가슴에서 피눈물이 떨어졌던 순간을 회상하였다. 유여시는 진자룡과 헤어진 후 이름을 ‘柳隱’으로 바꿔 버들개지 같이 떠돌았던 기구한 삶을 표현하였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여성학자 Dorothy Ko는 유여시가 과거 父系 가정 체계를 상징하는 楊氏 성을 과감히 내던져 자신의 원 가정(family of origin)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³²⁾ 이는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원 가정에 대한 혐오와 기녀라는 비천한 신분에 대한 수치심³³⁾을 표출한 것이다.

31) 샌드라 윌슨 지음·정동섭 옮김,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란노, 2005, pp.186-188.

32) 高彦頤(Dorothy Ko), 『閩塾師-明末清初江南의 才女文化』, 江蘇, 江蘇人民出版社, 2005.

33) ‘나비들 틈에서 살아가는 애벌레’의 이미지야말로 수치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림이다. 수많은 성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과 더불어 희망 없는 미래의 공포 속에 갇혀 지낸다. 수치심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딘지 모르게 결절

“隱”은 “숨기다”라는 뜻으로 유여시는 장기간 쌓였던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실존적인 죄책감을 느꼈고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 남성들과 사귀는 ‘기녀’라는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³⁴⁾ 유여시는 자신의 字를 蘼蕪³⁵⁾라고 지어 잡초처럼 험난했던 과거의 삶을 반영하였다. 유여시는 자신이 진자룡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사실 외부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漢代의 趙飛燕과 당대 傳奇 소설속에 등장하는 曠所옥에 비유하면서 타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진자룡과 百年偕老하려고 했던 원앙의 꿈이 깨졌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셋째, 신체적으로 유여시는 진자룡과 헤어진 후 독수공방하면서 심란하고 복잡한 심사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 “夢偏多”·“夜偏長”이라고 표현했다. 유여시는 실연의 고통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진자룡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그녀는 진자룡과 헤어진 후 의기소침해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잣말을 지껄이고 자신을 예쁘게 봐줄 대상을 상실하여 머리를 빗는 것조차 관심이 없었을 정도로 만사에 열정을 잃고 피로감에 젖은 모습을 묘사하였다.

「夢江南」11수에서 20수를 살펴보면 유여시는 과거 진자룡과 사랑을 나누었던 특별한 공간이나 활동에 집착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1.

人何在?	님은 어디에 있었지?
人在蓼花汀。	님은 여뀌 꽃 물가에 있었지.
鐘鴨自沈香霧煖。	오리 향로의 향기 안개처럼 가라앉아 따스하고,
春山爭盡畫屏深。	화려하게 다투는 봄 산 같은 병풍 두르니,
金雀斂啼痕。	금비녀에 눈물자국 멈췄네.

적인 결합투성이라고 느끼게 하며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샌드라윌슨 지음·정동섭 옮김,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란노, 2005, p.14.

34) 최수경, 「명말의 기녀를 둘러싼 문화적 이미지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2006, 292쪽-293쪽.

35)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0, 282쪽.

12.

人何在？
人在小中亭。
想得起來勻面後，
知他和笑是無情，
遮莫向誰生。

님은 어디에 있었지?
님은 작은 정자 안에 있었지.
일어나 얼굴을 단장한 것 생각난다.
그의 미소가 무정한 것 알면서도
왜 이리 마음이 쏠리나?

13.

人何在？
人在月明中。
半夜奪他金扼臂，
帶人還復看芙蓉，
心事好朦朧。

님은 어디에 있었지?
님은 밝은 달 속에 있었지.
한밤중에 그의 금팔찌 빼앗아
님한테 연꽃 보러 가자고 애교 부렸지.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네.

14.

人何在？
人在木蘭舟。
總見客時常獨語，
更無知處在梳頭，
碧麗怨風流。

님은 어디에 있었지?
님은 목란 배안에 있었지.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머리 빚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네.
고결한 미인 풍류를 원망하네.

15.

人何在？
人在綺筵時。
香臂欲擡何處墮，
片言吹去若爲思，
況是口微脂。³⁶⁾

님은 어디에 있었지?
님은 화려한 연회에 있었지.
향기로운 팔 치켜들어 어디에 내려놓을까?
내뿜는 말마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
하물며 연한 연지 바른 입술에 있어 서랴!

16.

人何在？
人在石秋棠。
好是捉人狂耍事，
幾回貪卻不須長，
多少又斜陽。

님은 어디에 있었지?
님은 석추당에 있었지.
미친 듯이 술래잡기 놀이 좋아했지.
몇 번이나 잡히길 원해서 길게 끌진 않았지.
그동안 석양은 얼마나 졌는지?

36)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93쪽-94쪽.

17.
 人何在? 님은 어디에 있었지?
 人在雨煙湖。 님은 안개 자욱한 비 내리는 호수에 있었지.
 篙水月明春膩滑, 달밝은 봄날 상앗대 저으니 배는 미끄럽게 나가고,
 舵樓風滿睡香多, 배가 누각 지날 때 瑞香 향기 바람 가득 날리며,
 楊柳落微波。 버들개지 잔잔한 물결위로 떨어지네.

18.
 人何在? 님은 어디에 있었지?
 人在玉階行。 님은 길가 옥 계단에 있었지.
 不是情癡還欲住, 미친 듯이 사랑해서 관둔 것이 아니라
 未曾憐處卻多心, 전에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아닐까?
 應是怕情深。 정이 너무 깊어 질까봐 두려웠지.

19.
 人何在? 님은 어디 있었지?
 人在畫眉簾。 님은 눈썹 그리던 주렴 안에 있었지.
 鸚鵡夢回青鬢尾, 앵무새 꿈속에서 푸른 수달 꼬리 쪽으로 돌아왔네.
 篆煙輕壓綠螺尖, 篆刻 향기 푸른 소리같은 눈썹을 살짝 누르고
 紅玉白纖纖。 붉은 보석 같은 여인 고운 피부 지녔네.

20.
 人何在? 님은 어디에 있었지?
 人在枕函邊。 님은 베개 함 근처에 있었지.
 只有被頭無限淚, 이불만 남아 한없이 눈물 흘리고,
 一時偷拭又須牽, 잠시 남몰래 눈물 닦았는데 다시 끌리니,
 好否要他憐。³⁷⁾ 그가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인지?

「夢江南」 제11수부터 제20수까지는 “人何在”로 시작하여 진자룡이 자신의 곁을 떠났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자룡과 남원에서 동거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진자룡은 유여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기녀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서로 詩詞를 唱和를 하며 지적인 교류를 했던 연인이었다. 유여시는 지난 날 진자

37)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95쪽-96쪽.

룡과 청춘마를 댔던 것, 달 밝은 밤에 장미 휘장 안에서 정답게 대화했던 것과 추억이 서린 여뀌 꽃 물가를 떠올렸다. 또한 작은 정자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달 밝은 밤에 님의 팔찌를 빼앗아 연꽃 보러 가자고 즐겼던 것, 목란 배를 댔던 것과 화려한 연회 속에서 재주를 과시했던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유여시는 진자룡을 위해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이름답고 우아한 춤을 사람들 앞에서 선사했던 과거를 회상하였다. 그녀는 진자룡과 술래잡기했던 일, 봄날 저녁 안개비 내리는 호수 가에서 달을 감상했던 일, 다정하게 옥 계단에 앉아 정답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 배가 함에서 함께 누워 귤속말로 속삭였던 것을 추억하며 실연 후의 고통과 외로움을 달랬다.

4. 逼迫으로 인한 自殺

자살이란 한 인격체가 자신의 심리적 갈등과 불합리한 외적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명백한 의지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신을 고의적으로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를 말한다.³⁸⁾ 유여시는 36살이나 연상이었던 전겸익을 만나 25년 동안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체험하였다. 1664년 전겸익이 83세의 나이로 病死하자 유여시는 사별의 슬픔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진정한 사별의 추구하고, 가정과 남편에 충실했으며 명말청초의 遺民으로서 청나라에 저항하여 명나라 재건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의협정신이 투철하였다. 유여시는 전겸익이 죽은 지 34일 만에 유서를 남기고 1664년 6월 28일에 자살을 선택하여 4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녀가 딸에게 남긴 유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錢朝鼎이 처음에는 아무런 조짐이 없더니,
후에 날 찾아와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나한테 돈 있을 거라고 으박지르고

38) 시즈코, 「자살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과 사목적 대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4.

錢曾을 보내 핍박했다. 錢曾과 錢朝鼎은 네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지만 나한테 심하게 협박했다. 錢天章이 죄 지었을 때 나는 네 아버지한테 성심 다해 구해주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그는 張國賢과 결탁해서 관청 소유의 금전과 관청에서 증명한 문서로 사기를 치고 錢朝鼎에게 바쳤다. 본디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뜻밖에 또 집안에 들이닥쳐 네 오빠의 전답을 錢朝鼎에게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돈 내놓으라고 생떼 쓰고, 허위장부를 만들어 내 생명까지 위협하였다. 내 주위에 아무도 네 아버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인들은 전부 잡혀갔고, 너는 아직 어려 내가 당한 고초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내 수중에 땀 한 톨 없는데도 그들은 삼천냥을 갚으라고 협박하였다. 너랑 네 오빠를 독촉하니 나는 진퇴양난에 빠져 원통하구나. 나는 너희 남매 목숨까지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25년 동안 여태껏 단 한 번도 멀시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지금 면전에서 모욕을 당했으니 나는 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너는 오빠와 새언니를 부모처럼 섬겨라. 내 원한은 내가 오빠랑 함께 나서서 처리하고, 아버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여라. 내가 저승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면 단 한명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汝父死後,先是某某並無起頭,竟來面前大罵.某某還道我有銀,差遵王來逼迫.遵王(錢朝鼎)、某某(錢曾)皆是汝父極親切之人,竟是如此詐我.錢天章犯罪,是我勸汝父一力救出,今反先申張國賢,騙去官銀官契,獻與某某.當時原云諸事消釋,誰知又逼汝兄之田,獻與某某.賴我銀子,反開虛眼來逼我命,無一人念及汝父者.家人盡皆捉去,汝年紀幼少,不知我之苦處.手無三兩,立索三千金,逼得汝與官人進退無門,可痛可恨也.我想汝兄姝二人,必然性命不保.我來汝家二十五年,從不曾受人之氣,今竟當面凌辱,我不得不死.但我死之後,汝事兄嫂,如事父母.我之冤仇,汝當同哥哥出頭露面,拜求汝父相知.我懇陰司,汝父決不輕放一人.垂絕書示小姐.)³⁹⁾

유여시가 쓴 유언에 근거하여 자살한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친족들의 경제적인 압력과 핍박 때문으로 인한 것이다. 전겸익과 유여시는 평생 복명운동을 물질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만년에는 전겸익의 약을 살 돈조차 없어서 고생하였다. 그러나 친족들은 전겸익이 총애했던 유여시에게 전 재산의 위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짜 문서를 조작하여

39) 『虞陽說苑甲編』, 『河東君殉家難事實』,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215쪽.

유여시한테 은 3천냥을 청구하고,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⁴⁰⁾고 협박하면서 그녀를 궁지로 몰고 하인까지 잡아다가 고문하며 錢氏 집안의 전답과 집을 노렸는데 유여시는 가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유여시는 평생 동고동락했던 전겸익의 죽음으로 ‘배우자 사별’이라는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었다. 陳寅恪은 유여시가 전겸익과의 정감이 돈독하여 친족들의 핍박이 없어도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⁴¹⁾고 보았다. 유여시는 전겸익의 죽음으로 인해 극도의 슬픔과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배우자 상실로 인해 자살했을 가능성은 적다. 유여시가 가장 사랑했던 진자통과 헤어져 6년이라는 세월을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유여시는 현실을 직면하고 새로운 남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돌파구를 찾았다. 유여시는 친족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종교에 귀의하며 암암리에 복명운동을 도왔을 것이다.

셋째, 유여시는 못된 친족들이 錢氏 집안의 재산과 전답을 빼앗으려고 하자 전처의 소생에서 태어난 아들과 자신의 소생인 딸이 생명조차 위협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녀는 딸에게 이복 오빠와 함께 연합하고 주위에 있는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난국을 돌파하기를 신신당부했다. 유여시는 자녀와 錢氏가문의 재산과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나친 책임의식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여시의 딸은 짐승같은 친족 錢謙光과 조카 錢孫曾의 악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엄마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께 보답했으니, 나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머니께 보답하겠다.....엄마를 죽인 도적과 똑같은 하늘 아래 있지 않겠다”⁴²⁾고 복수를 다짐하였다.

넷째, 유여시는 과거 전겸익의 은혜를 받았던 친족들이 하루아침에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사기와 협박으로 錢氏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것에 대해 반드시 그들의 죄를 처벌하겠다는 복수 심리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저승에 있는 전겸익의 도움을 받아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를 소망하였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반

40) 錢氏 『孝女揭』,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00, p.230.

41) 陳寅恪, 『柳如是別傳(下)』,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p.1229.

42) 錢氏 『孝女揭』,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00, p.231.

드시 원수를 갚아 억울함을 풀겠다고 결심하였다.

다섯째, 유여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못된 친족들이 그녀를 향해 던졌던 조롱과 인격적인 모독이었다. 그들은 전겸익이 살아있을 때는 유여시한테 함부로 못하다가 남편이 병사하자 유여시가 기녀였다는 과거를 들추어내며 온갖 비난과 수모를 퍼부었다. 유여시는 어려서 인신매매와 학대를 당하고 노예로 팔린 적도 있고, 첩이 되어 주위 여성들의 질투를 받아 쫓겨나 기녀로 살면서 무의식중에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이 뿌리 내렸다. 유여시는 예술적인 재능과 의로운 행위를 통해 내면의 수치심을 덮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녀는 타인이 자존심을 건들면 쉽게 분노를 표출했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했으며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을 만큼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을 지녔다. 유여시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유여시는 25동안 전겸익과 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아 유년기의 상처와 아픔이 상당 부분 치유되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친족들이 그녀의 약점을 잡아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사건이 촉발되자 유여시는 과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수치심과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다시 밀려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5. 맺음말

사랑과 안전을 공급받았던 가정을 상실한 유여시는 철저히 遺棄되어 인신매매와 이동학대를 당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뿌리를 잃어버린 유여시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였고 고아-노비-첩-기녀라는 천대받는 신분에 속해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차별과 편견 속에서 타자로서 생존을 위해 참아야만 했다. 遺棄로 인해 유여시는 자녀라는 신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도 잃어버렸고, 기녀라는 신분 때문에 성적 자주

권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유여시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술적인 재능과 문학적인 소양을 키워 名妓가 되어 당당하게 주류사회의 사대부 남성들과 교류하며 국가대사를 토론하였다. 그러나 유여시의 내면에는 어느새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이 뿌리내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고결한 인품과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완벽주의와 영웅주의적인 심리를 드러냈다. 유여시는 18살에 반년간 동거를 했는데 본처의 방해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자신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망상 때문에 6년 동안 상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며 헤어진 진자룡한테 강한 집착을 보였다. 25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전겸익이 죽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여시는 錢氏 집안에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친족들에게 경제권마저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첩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유여시는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던 남편이 사망하자 유여시는 錢氏 친족들한테 심한 욕설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 내면의 속박적인 수치심이 다시 촉발되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參考文獻〉

- 김묘정,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실연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자아가치관과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원동 「明末 기녀들의 삶과 문학과 예술(1) -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中國文學』 第35輯, 2001.
- 김원동 「명말 기녀들의 삶과 문학과 예술(2) -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中國文學』 第36輯, 2002.
- 김원동 「明末 清初 여성의 文才와 創作에 대한 小考 - 序跋文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제21집.
- 샌드라윌슨 지음·정동섭 옮김,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란노, 2005.

- 시즈코, 「자살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과 사목적 대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윤희기 옮김, 『무의식에 관하여』(프로이트전집 13), 열린 책들, 1997.
- 최수경, 「명말의 기녀를 둘러싼 문화적 이미지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2006.
- 孫康宜 著·李爽學 譯, 『陳子龍柳如是詩詞情緣』, 臺北: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1992.
- 譚正璧, 『中國女性的文學生活』, 金壇: 江蘇光陵古籍刻印社, 1998.
- 鄧紅梅, 『女性詞史』,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0.
-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0.
- 〔清〕柳如是 撰·谷輝之 輯, 『柳如是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陳寅恪, 『柳如是別傳』(上、中、下),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 姜正萬, 「柳如是의 愛精詩를 통해서 본 그녀의 生涯 研究」, 『中國學論叢』 제12집, 2001.
- 範景中·周書田 編纂, 『柳如是事輯』, 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2.
- 李聖華, 『晚明詩歌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張仲謀, 『明詞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張宏生 著, 『明清文學與性別研究』,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李翎鈺, 「河東君與『柳如是別傳』-「接受觀點」的考察」, 臺灣: 國立中央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3.
- 高彥頤(Dorothy Ko), 『閩塾師-明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 江蘇: 江蘇人民出版社, 2005.
- 袁文雅, 「從錢柳交往看柳如是的精神追求」,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 譚德紅, 「明清之際女性文學的奇葩-柳如是作品之解讀」,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 金鮮, 「秋瑾의 詩詞에 나타난 夫婦關係」, 『中國語文學誌』 第25輯, 2007.
- 金鮮, 「중국 현대 女性詞人 沈祖棻의 逆境과 克服양상」, 『中國語文學誌』 第28輯, 2008.
- 胡文楷 編·張宏生 增訂, 『歷代婦女著作考』(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李麗秋, 「한중 妓女시인 金雲楚와 柳如是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대학원 박사논문, 2009.

〈Abstracts〉

From Abandonment to Suicide

- A Focus on Liu Rushi's Sense of Shame and Humiliation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Kim, Seon

In this article, while focusing on Liu Rushi's experience of abandonment, her sense of shame, of being forsaken by lovers, her obsessions, delusions of persecution, and her eventual suicide, the formation of and the effects of Liu Rushi's sense of shame are discussed. Being abandoned in childhood, she had developed a low self-esteem, and humiliation was deeply ingrained into her self-image. This deep-rooted sense of shame about resulted in her developing the mind-set of a perfectionist and that of a heroic figure constantly seeking approval from others of her existence and self-worth through her display of a character of the highest integrity and righteousness. At the age of 18, Liu Rushi lived with her lover, Chen Zilong, for about a half year; however, after her relationship with him broke up due to the hindrance of his legitimate wife, she was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believed herself forsaken by the whole world. She then suffered from a delusion of persecution, and this mired in her feelings of regret and loss for about six years. During those years, heavily bogged by a sense of alienation, she was unable to face reality and began to suffer from insomnia and depression. After the passing away of her husband, Qian Qianyi, who had lived with her for 25 years, she was viciously cursed and maligned by his relatives. This humiliating experience brought out the deeply repressed sense of shame from her sub-consciousness, and her low self-esteem left her no choice but to commit suicide.

Key Words: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Liu Rushi, sense of shame, abandonment, suicide

이 논문은 2017년 4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5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